

# “南美 ‘핑크 타이드’는 끝났다... 지난 10년 성장은 착시현상일 뿐”

(선거 통한 좌파집권 물결)

(중국발 원자재 불어 편승)

## 전직 대통령 13인의 '고백' 현장을 가다



있다. 핑크 타이드는 혁명이 아닌 선거를 통해 좌파 세력이 집권하는 물결을 뜻한다. 참석자들은 “최근

“대부분의 중남미 국가는 글로벌 기업의 투자를 적극 환영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반(反)자본주의 국가인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만 조심하면 됩니다.”(에두아르도 두알데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19일(현지시간) 열린 ‘글로벌피스 컨벤션 2014’에 참석한 13명의 중남미 전직 대통령은 빈곤 탈출을 위한 경제 성장을 위해선 기업 유치를 통한 시장 친화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한국의 경제 발전을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을 국유화했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2012년에 스페인 석유기업인 YPF를 일방적으로 국유화해 갈등을 빚었다.

카를로스 메사 전 볼리비아 대통령은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법적인 안정성을 보장하고, 투자자들이 정당한 세금만 내면 중남미에서도 정부와 외국인 투자자들이 ‘윈-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코스타리카의 첫 여성 대

포퓰리즘과 반시장정책은 늘 연계되는 가장 나쁜 짝

10년 집권 좌파정권 퇴조  
親시장 젊은 중산층 증가

령을 지낸 라우라 친치야 전 대통령은 “중남미 국가들은 지금까지 원자재 수출을 통해 어느 정도 경제성장을 이뤄냈다”며 “앞으로는 시장 친화적인 혁신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 10년간 중남미를 주름잡았던 ‘핑크 타이드’(분홍물결·pink tide)가 사실상 끝났다는 주장도 나왔다. 현재 남미 12개국 중 파라과이와 콜롬비아를 제외한 10개국에서 좌파가 집권하고

### “젊은 중산층” 교육이 중요

전직 대통령들은 중남미의 가장 큰 힘은 ‘젊은 중산층’이라고 입을 모았다. 포퓰리즘이나 정부의 복지정책보다는 계속 상승에 대한 욕구가 커 친(親)자본주의 성향을 띠고 있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알바로 콜롬 전 과테말라 대통령은 “지금 시기가말로 중남미가 성장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젊은 층이 정치에 많은 관심을 쏟고, 기성세대와 소통을 할 수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니시오 세레소 전 과테말라 대통령은 “중남미 국가들이 예전처럼 독재정치에 시름하지 않기 위해선 젊은 층의 교육과 혁신에 주력



파라과이 수도 아순시온에서 19일(현지시간) 열린 ‘글로벌피스 컨벤션 2014’에서 참석자들이 지역 현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왼쪽 두 번째가 오라시오 카르테스 파라과이 대통령. 세 번째는 룬현진 GPF재단 이사장.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GPF재단의 룬현진 이사장은 “남미는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중산층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들을 더욱 강력하게 하기 위해선 경제 개발에 먼저 성공한 한국처럼 수준 높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故) 문선명 통일교 총재의 3남인 문 이사장은 2007년 비영리 국제 민간기구 GPF재단을 설립했다. 이 재단은 매년 전 세계 각국을 돌며 정치·경제·사회적 문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는 콘퍼런스를 열고 있다.

kk1026@hankyung.com

## 인터뷰 오라시오 카르테스 파라과이 대통령

# “南美 심장 파라과이엔 반기업 정서 없다”

“반기업 정서와 포퓰리즘이요? 그런 것은 다른 대통령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오라시오 카르테스 파라과이 대통령(사진)은 19일(현지시간) 글로벌피스 컨벤션에서 기자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파라과이의 반(反)기업 정서를 묻는 질문에 카르테스 대통령은 “우리는 노동과 부(副)의 원천을 믿는다”며 “반기업 정서는 파라과이에 없다”고 힘줘 말했다.

카르테스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 등 다른 남미 국가들과 파라과이는 상황이 다르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라과이는 친기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 유치를 위해 법인세도 과감히 낮추는 등 인센티브가 많다”고 말했다. 카르테스 대통령이 지난 8월 집권

기 위해 철도, 공항, 도로 등 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THN(현대자동차 관계사)이 공장을 설립해 1000개가 넘는 일자리를 만든 것처럼 투자를 유치해 고용을 늘리는 게 지도자의 가장 큰 책무”라고 강조했다. 카르테스 대통령은 “파라과이 근로자들의 임금은 남미 국가 중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인구의 74%가 34세 이하여서 젊은 노동력이 많다는 게 걱정”이라고 설명했다.

### 법인세도 과감히 인하 한국이 경제발전 모델

파라과이의 대표적 기업가 출신인 카르테스 대통령은 페르난도 루고 전 대통령이 지난 해 의회 탄핵으로 물러난 뒤 치러진 대선에서 우파 플로라도당 후보로 나서 당선됐다. 그는 선거공약으로 친기업정책과 사유재산 보호를 내걸었다. 외국 기업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파라과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고질적인 빈부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것이었다.

### 한 이후 파라과이 정부는 자유 무역보세가 공시대법, 내·외국인 투자촉진법, 산업지대법 등의 투자 촉진책을 잇따라 시행했다.

카르테스 대통령은 “파라과이는 남미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지정학적으로 유리해 기업들의 남미 진출의 관문이 될 수 있다”며 “허브 역할을 하



“지난 6월 한국 기업인 일성건설이 파라과이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입찰을 통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따냈다”며 “앞으로도 한국 기업들이 파라과이에 적극 투자해달라”고 당부했다.

### 아순시온=강경민 기자

kk1026@hankyung.com

## 인프라 열악... SOC 첫 국제입찰 한국기업이 따내

### ‘남미 허브’ 꿈 파라과이

#### 외자 유치에 적극적

남미 대륙의 중심부에 자리잡은 파라과이는 19세기 당시 남미에서 가장 먼저 철도서비스를 시작했다. 하지만 지금은 철도서비스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남미의 심장’이라는 지정학적 위치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브라질 농업지대의 농산물을 태평양 건너로 수출하려면 파라과이를 지날 수밖에 없다.



반적인 사회간접자본(SOC) 인프라가 부족해 허브 기능을 하기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파라과이 정부도 뒤늦게 인프라

라 건설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파라과이 정부는 2011년 코이카(KOICA)의 무상원조로 대륙 간 철도 구간 타당성 조사를 시작한 후 교통마스터플랜을 수립, 철도 재건 방안을 마련했다. 인프라 건설을 위한 외국 자본 유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 건설기업인 일성건설은 지난해 파라과이 8년 국도 정비사업공사 낙찰자가 됐다. 파라과이 역사상 처음으로 국제입찰을 통해 SOC 사업을 따낸 것이다.

파라과이는 1962년 한국과 수교를 맺은 이후 국제무대에서 줄곧 한국 입장을 지지해온 우방국이라는 점도 한국 기업들에 장점이다. 파라과이는 남미 대륙에서 유일하게 대만과 수교한 국가로, 아직까지 중국 기업들의 파라과이 진출은 눈에 띄지 않는다. 김윤희 KOTRA 아순시온무역관 관장은 “지난해에 비해 한국 기업들의 문의가 두 배 이상 늘었다”며 “다른 남미 국가와 달리 파라과이가 친기업 노선을 택한 데다 법인세도 낮아 한국 기업들의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 정부 규제완화로 서울 생활권인 과천토지 인기상승! ◆ 과천 1조원대 토지보상금 영향 개발제한구역 땅 값도 2년새 2배 상승!

# 과천역 2분, 과천토지 [도시지역내 자연녹지] 공개매각!

**과천시 2020 핵심전략 -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  
정부청사 떠난 과천 부동산 들썩...

과천역에서 1km

매각지  
도시지역·자연녹지 (약 102,089㎡)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일대

**경기도내 그린벨트 규제, 대폭 완화·절차 간소화**

◆ 경기도는 그린벨트 제도와 관련해 △개발제한 구역 내 공장 등 기업규제 개선 △시·군의 재정부담 완화 △주민불편 해소 및 그린벨트 해제관련 시·도 위임 등 3개 분야에 걸쳐 대대적인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먼저 기업 규제 개선에 대해 도는 그린벨트 내 기존 건축물이나 공장 등 중추 시 국토교통부 장관의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 없이

시장·군수가 허가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 간소화를 추진한다. 이 경우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해 2~3년 걸리던 공장 증축 허가 기간이 1~2개월로 단축된다. △특히, 면적의 85%가 그린벨트인 과천시의 2020핵심전략 1순위가 개발제한구역 합리적 조정으로 그린벨트 해제가 예상되는 곳은 큰 수익을 인계할 수 있다고 보인다. 2014년 1월 28일자 언론기사

**그린벨트 규제완화 최대 유력지**

- 과천시 갈현동/문원동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확정
- 토지보상금 영향에 따른 그린벨트 지역도 2년새 2배 상승
- 경기도내 그린벨트 규제, 대폭 완화·절차 간소화 착수 (2014. 01. 28 기사)
- 과천시청 취임 100일 인터뷰-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 피력 (2014. 10. 24 기사)

분양지에서 바라본 문원 2단지

**3.3㎡당 45~75만원**

- 매각 소재지: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일대(지목: 임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 - 도시지역·자연녹지지역
- 다른법령 등에 따른 지역/지구 - 개발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수도권정비계획법)

▶매각금액 : 3.3㎡당 40~75만원 (550㎡~847㎡)  
▶주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3.3㎡당, 800~1,500만원대

청약금: 300만원 ▶하나은행: 445-910285-06507 ▶심윤관(지주)

과천시에 이렇게 저렴한 토지는 없습니다!

**3.3㎡당 40~75만원으로 과천토지를 소유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과천역에서 1km, 도로에 접하고 있는 도시지역 토지)

매각지

책임담기 및 소유권 등기이전: 이준호 법무사

상/담/문/의 **02)2038-0171**